

건축문화

a+u

신건축

Architectural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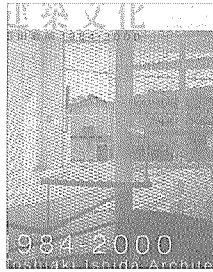
Architecture

Domus

건축문화

2000년 5월호

이번 호는 건축가 이시다 토시아키(石田 敏明)의 특 집 으 로 1984년부터 2000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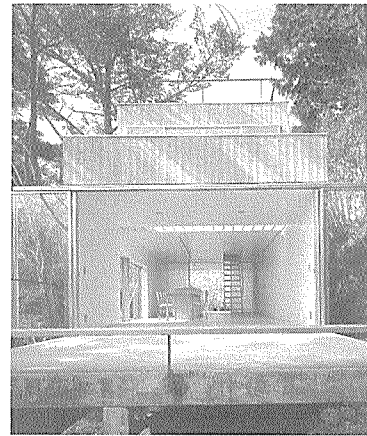
설계작업이 이루어진 22개의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다. 22개의 작품들은 주택이 주종을 이루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설계작업이 이루어진 순서대로 시대순으로 나열되고 있어 그의 작품경향의 변화와 함께 일관된 작품제작의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다.

■ 특집 - 이시다 토시아키 1984-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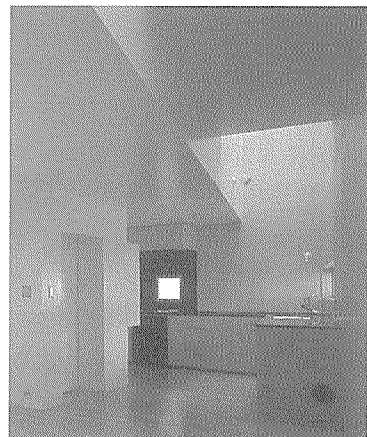
▶ 이시다 토시아키의 건축

이번 특집은 이시다 토시아키가 1982년에 독립한 이후 1984년부터 이루어진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소개하며, 그의 작품 경향의 변화와 또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일관되게 남아있는 그의 설계작업에 있어서의 방법론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작품에 대한 해설은 작가의 글이 아닌 작가와 이를 거들여줄 다른 한 건축가와의 대담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대담의 상대자는 그의 작업을 지켜봐온 건축가 니시자와 류(西澤立衛)가 선택되었고, 그와의 총 15시간에 이르는 긴 인터뷰를 통해 그의 설계작업과정과 건축적 사고의 궤적을 그려내 보이고 있다. 니시자와와의 인터뷰는 각 작품의 설명으로서 도판들과 함께 편집되어, 사진과 도면에 이들이 언급했던 사고의 과정과 작업에 있어서의 관심사들이 반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소개된 작품들



후지산 기슭의 주말별장



SUZ 하우스



아리아케 페리 터미널

소개된 22작품 중에서 주택이 가장 많으나, 소규모 상점건물, 소규모 사무소 건물, 페리어객선 터미널, 소방서, 기숙사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선보이고 있다. 22개의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우라사키의 주택, 치가사키의 주택, H-Office, 초나시마의 주택, A-Project(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실험적인 생태학적 휴식처의 계획안), 후지산 기슭의 주말별장, 야쿠르트 독신자 기숙사공개설계경기 응모안, 타이헤이 철공소 별관, NOS 하우스, SUZ 하우스, F4(옥상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4

개의 Floor를 가진 주택), 아리아케 페리 터미널, 히로시마 서부 소방서 설계 경기 응모안, 히라타마치 타운센터 설계 경기 응모안, T2빌딩, 5 Floors(주택과 함께 계획된 치과 클리닉), 로데오 드라이브(상점), 카호쿠町 아트프로젝트 설계경기 응모안, KOB빌딩, 카페 Vlijmen, KUS하우스, 인자이동부 소방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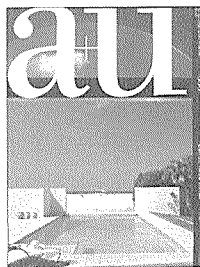
▶에세이와 좌담회

그의 작품에 대한 에세이는 그의 스승이었던 이토오 도요(伊東 豊雄)가 맡았다. 그는 이시다 토시아키를 '섬세하면서 동요하지 않는 건축가'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시다의 작품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사진으로는 그 컨셉이 잘 드러나지 않는 작품이며, 이러한 작품들이야말로 도시의 질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시대는 작은 주택공간에 건축가의 컨셉을 담아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간의 질을 높이는 작업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이시다의 작업이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좌담회는 그와 동년배 혹은 후배 건축가들인 아오키 준(青木 淳), 코지마 카즈히로(小嶋 一浩), 세지마 카즈요(妹島 和世), 니시자와 류우에(西澤 立衛)와 함께 이루어졌다.

a+u

2000년 5월호

이번 호에서는 '미국 서해안의 건축가'라는 특집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미국 서해안 특히 LA를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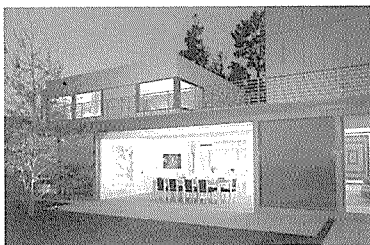


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 9명의 주택작품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으며, 사실상 미국 서해안의 건축가가 아닌 미국 서해안 주택들의 특집이라 할 수 있다. 모더니즘의 전통과 미국 서부해안의 기후적 특색, 그리고 자유분방한 미국 서부 건축의 문화가 엮여있는 10개의 주택들과 미술센터가 소개되었다.

■특집 - 미국 서해안의 건축가들

▶ 에세이『LA의 주택: 모더니스트의 전통을 토대로』-마이클 웹(Michael We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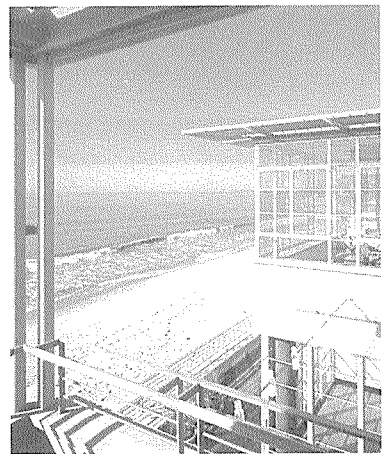
마이클 웹이 쓴 이 에세이에서는 LA 주택들의 생성과 이들 주택이 갖는 모더니즘적 전통의 역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모더니즘 건축들이 확산되던 미 서해안에 라이트와 그와 동시대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이 모더니즘적 주택들을 보급해가는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허곳/셰퍼드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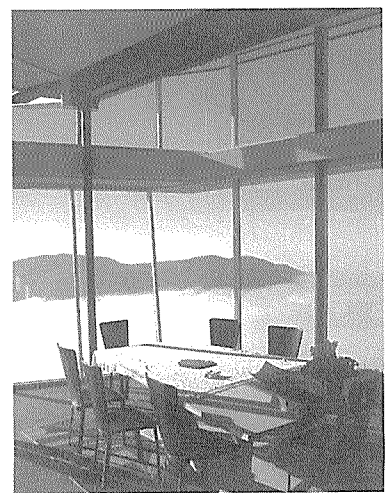
▶ 마이클 T 말잔 (Michael T. Maltzan)의 허곳/셰퍼드(Hergott/Shepard) 주택은 절제되고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면은 초기 모더니스트들의 주택들을 연상시키는 구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의 아기자기한 스케일을 넘어서는 널찍한 벽면들은 사뭇 아트리어나 사무실 건물을 연상시킬 만큼 무심하기까지 하다. 정원을 향해 가로로 길게 놓여진 식당 공간은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정원과 연결시킴으로서 서부해안의 기후를 만끽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서부해안의 자연을 끌어들이는 점은 무어 루블 유델 아키텍츠 앤 플래너즈



페그 요킨 주택

(Moore Ruble Yudell Architects & Planners)의 페그 요킨(Peg Yorkin) 주택과 스티븐 엘리히(Steven Ehrlich)의 리차드노이트라의 비치하우스 증축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페그 요킨 주택은 서부 해안의 도로에 면한 모래사장에 대를 쌓고 그 위에 지어올린듯한 형상으로, 해안을 향해 넓게 펼쳐진 발코니는 거실과 가족실, 식당으로 유입되어 해변의 모습을 실내공간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스티븐 엘리히는 캘리포니아에 모더니즘 주택의 전통을 만들어 낸 리차드 노이트라의 '비치 하우스(Beach House)'의 증축을 맡았다. 기존 건물의 정원부분에 지붕을 씌우고 바와 옥외 거실을 만들어 기존의 수영장과 연결시킴으로서 외부로 개방된 거실로부터 수영장, 해안에 이르는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B.R.M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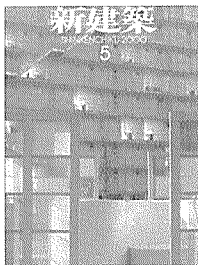
▶ 하기 벨츠버그(Hagy Belzberg)의 B.R.M. 주택은 좀더 독특한 경관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 주택은 산타 모니카 산맥 서단에 위치하여 구름위로 솟은 봉우리들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파편적인 형태의 평면을 지닌 이 주택은 주위의 암석들이 정원을 통해 파고들며, 대지와 유기적인 구성을 하고 있어 라이트의 낙수장을 연상케도 한다. 한편으로는 산맥의 경관으로 한편으로는 펼쳐진 바다의 수평선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주택이다.

▶이제까지의 주택들이 규모가 큰 고급 주택들이었다면, 거스리+브레쉬(Guthrie+Buresh)의 워크하우스(WorkHouse)와 존스 파트너스(Jones, Partners)의 브릴 저택은 작은 규모의 캘리포니아 주택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두 주택 모두 좁고 긴 형태의 평면을 가지고 있는데, 워크하우스는 외부공간을 어두운 공간, 밝은 공간, 습한 공간, 마른 공간 등으로 나누고 있는 점이 눈에 띄며, 브릴저택에서는 하나의 기계와 같이 유니트화된 확장실 설비를 보여주고 있다.

신건축

2000년 5월호

이번 호에 소개된 작품들은 국제회의장, 고층 집합주택, 대학의 복합 강의동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키시 와로(岸和郎)의 카즈라세이(골동품 갤러리), 미야자키 히로시(宮崎浩)의 세타가야(世田谷)자동차학교 미와 마

사히로(三輪 正弘)의 카루이자와 올림픽 기념관 등 오히려 중소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눈에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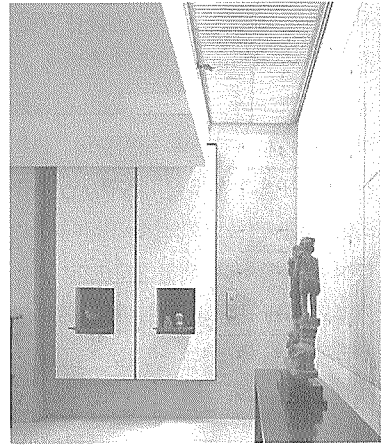
■작품

▶기후(岐阜)縣營주택 하이타운 북부 남측블럭 제 2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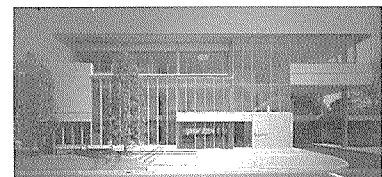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기후현이 진행중인 대단위 집합주택 단지 중의 하나이다. 프로젝트의 전체 코디네이터는 잘 알려진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磯崎 新)이 맡았으며, 랜스케이프는 마사 스와츠(Martha Schwartz)가 담당한 가운데 각 주동의 설계를 여러 건축가들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2기분에 완공된 건물들은 건축가들의 이름을 따서 타카하시(高橋)棟, 홀리에(Hawley)棟, 딜러(Diller)棟, 세지마(妹島)棟 등으로 이름붙여졌다. 주호평면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타마시동은 기둥을 이용한 구조방식을 채택하였고, 딜러동은 각 주호가 조금씩 엇갈리며 배치되었고, 홀리에동에서는 각 조호가 요철이 심한 가운데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결합되어있다. 가장 인상적인 세지마동에서는 미리 방한개 크기의 일정한 모듈을 정해놓고 이들 모듈이 일렬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주호평면이 구성된다. 방의 갯수와 전체 주호의 면적은 결합된 모듈의 갯수에 따라 정해지고 큰 주호와 작은 주호에서 방의 크기는 모두 같도록 되어있다.

▶키시 와로(岸 和郎)의 카즈라세이 아무런 작가의 설명의 글 없이 소개된 이 건물은 골동품 전시장이다. 건물의



양측에 이웃 건물들이 가깝게 붙어있고 유일하게 도로에 면한 입면은 매우 좁은 전형적인 모습의 일본 상업지 필지에 위치하고 있다. 깊숙한 입구부분의 쇼윈도우와 진입현관은 도로면보다 레벨을 낮추고 있다. 이 낮춰진 레벨은 건물 내의 소름이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계단에 의해 올려지고, 이와 조금 떠러진 곳에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따로 놓이게 되는데, 진입시의 느낌을 고려한 레벨의 조정이었는지 건물 층고가 제한된 상황에서 실내 층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는지 알 수는 없다. 마감 재료는 노출 콘크리트와 목재, 석면, 라임스톤, 철 등 다양한 재료를 쓰면서 장식과 과도한 공간의 조형을 배제하고 재료간 접합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서 재료의 물성을 드러내는 디테일을 사용하고 있다. 전시공간의 분위기 연출을 위해 치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고, 창이 없는 건축실제로 많은 창을 낼 수 없는 대지의 상황이다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천창과 계단실 공간을 어우러지게 만들어 실내 분위기의 연출에도 기여하게 만들고 있다.

▶미야자키 히로시(宮崎 浩)의 세타가야(世田谷)자동차학교



자동차 운전교습소인 이 건물은 기존 건물의 재건축이다. 건물의 후면에 교습 코스를 두어 그 입구는 학원 건물을 관통하여 지나가도록 하였으며, 학원 건물은 교실과 사무실,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재건축 과정에서 새로이 허가를 내기 위한 조건으로 건물 전면의 5m×65의 대지를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지로 만들었는데, 이 공간에는 건물의 내부로부터 연결되어 나오는 마루를 깐 데크가 설치되어 건물의 테라스로서의 영역성도 함께 획득하려하고 있다. 건물의 조형은 모더니즘의 초기작들을 연상시키고 있으며, 실내의 레몬색 벽은 외부의 노출콘크리트의 회색벽과 대조를 이루며 건물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미와 마사히로(三輪 正弘)의 카루이자와 올림픽 기념관

실내체육관을 연상시키는 실내 공간, 벽면을 따라 올라가는 램프와 이와 함께 전시된 각종 전시물들, 작은 기념관이지만 동계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소형 기념관으로서 좁은 전시공간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전시물의 성격에 걸맞는 전시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듯 하다.

Architectural Review

2000년 4월호

영국의 뉴 밀레니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를 전권에 걸쳐서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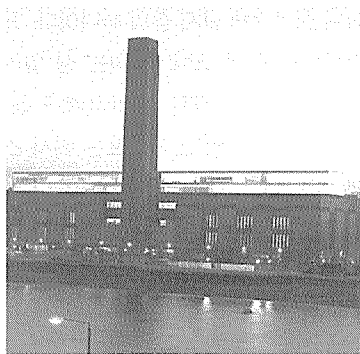
2000년을 맞으면서 세계의 이

목을 집중시켰던 최대 프로젝트는 영국의 밀레니엄 돔이었다. 영국의



디자인과 기술력이 결합되어 혁신적인 디자인 산물과 위락기구들로 가득찬 이 구조물은 영국 건축의 위상을 드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복권발행등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했던 Millenium Commission은 그 밖의 190여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본지는 Millenium Commission이 지원하였던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대부분 유선형태의 과학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과 낙후된 도시중심부나 탄광등을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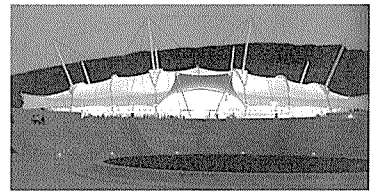
▶ Herzog & de Meuron의 런던 테이트 현대 미술관



국제현상설계공모에 당선된 Herzog de Meuron의 안은 두개층의 수평 발광체로 특징지어진다. 그것은 강한 수직요소인 중앙 굴뚝과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내부로 빛을 유입시키고 밤에는 환한 발광체의 역할을 한다. 1948년에서 1963년 사이에 두단계에 걸쳐 지어진 이 건물, Bankside는 초기 Dutch Modernism을 반영하고 있다. Herzog & de Meuron은 긴 슬릿창을 가진 벽돌 스킨을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서측면에 거대한 램프를 두어 건물의 중세적 분위기를 희미하게 하고 있다.

▶ Michael Hopkins & Partners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Dynamic Earth Center

이 건물의 디자인 컨셉은 18세기 근대 지리학의 선구자였던 James Hutton



에 대한 추모로부터 출발한다. 건물은 세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패브릭소재의 텐트구조 지붕이다. 아래에 전시실과 사무실, 공방을 수용하는 이층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앞에 야외 극장이 중심축에 맞춰 나란히 놓여졌다. 18세기에 지어진 이 도시, Royal Mile의 동서축을 따라 놓인 거대한 텐트구조의 지붕은 어두운 녹색의 인접한 둔덕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 Alsop & Stormer, Fielden Clegg, Letts Wheeler의 Doncaster Earth Center

옛 탄광촌이었던 지역을 자연과학 학습공원으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로서, Earth Gallery, 수력 발전관과 생태 목초지, 정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마스터 플랜은 Derek Lovejoy Partnership에서 수행하였는데 이 공원은 이곳 대지의 다양성을 축복하는 개념에서 발전하였다. 이곳 토양의 종류는 라임스톤이 풍부한 알카리성의 남부지역과 쓰레기 등으로 인해 산성토로 변한 북부지방으로 나뉜다. 남북 방향의 공원 시퀀스는 위와 같은 토질의 변화에 따라 계획되었다. 낮음에서 높음의 시퀀스로, 식물의 종류도 높지대 초목류에서 건초로 그 수종이 변화되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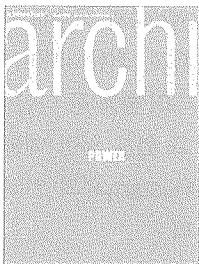
그 밖에 총 20여개의 프로젝트들이 소개되었는데 ▶Terry Farrel & Partners의 Newcastle 국제 생명과학 센터 ▶Terry Farrel & Partners의 Kingston 해양박물관 ▶스포츠포츠 시설, 과학센터 그리고 영화관등이 결합되어 낙후된 도시중심부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인 Consarc Design Group의 북 아일랜드, Belfast,

Odyssey Project ▶ Richard Rogers Partnership의 런던 Millenium Dome ▶ Foster and Partners의 런던, British Museum Great Court ▶ Foster and Partners의 웨일즈 Botanic Garden ▶ WilkinsonEyre Architects의 영국 Rotherham, ▶ WilkinsonEyre Architects의 영국 Bristol, IMAX 영화관 ▶ Michael Hopkins & Partners의 Norwich Millenium Center ▶ Nicholas Grimshaw & Partners의 Cornwall Eden Project ▶ Nicholas Grimshaw & Partners의 Leicester 국립 우주과학 센터 ▶ Michael Wilford & Partners의 Salford Arts Center ▶ Pringle Richards Sharrat Architects의 Sheffield Winter Garden과 미술관 ▶ BDP의 글래스고우 과학센터 ▶ Ian Simpson Architects의 맨체스터 도시중심부 재개발계획 ▶ Statton Williams의 Sussex, 종자창고 ▶ Percy Thomas Partnership의 Wales Millenium Center 등이다.

Architecture

2000년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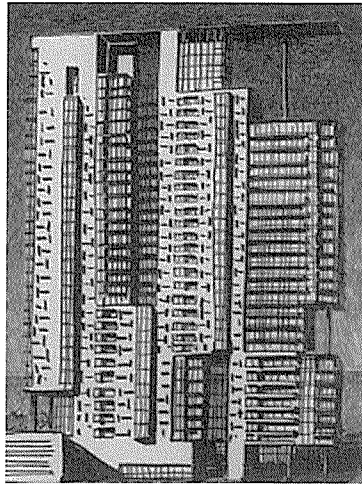
이번 호는 힘이라는 주제로 건축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면모, 건축전반에 관해서는 발전소 건물의 미술관 개조 프로젝트, 컴퓨터의 힘으로 가능한 가상 박물관등 다양하게 다뤄졌다. 예정작으로는 Perkins &



Will의 Condominium Tower와 Valerio Dewalt Traind의 Office Building 등이 소개되었다.

■ 예정작

▶ Perkins & Will의 시카고 Halsted Condominium Tower



39층의 콘도미니엄 타워는 일층의 인근 주민을 위한 슈퍼마켓과 그 위로 4개층의 주차장이 저층부를 구성하고 있다. 콘도미니엄 부분의 매스는 수직적으로 분절되어 가로로 불규칙하게 적층되어 있다. 이 건물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9m높이의 남북방향으로 건물을 관통하는 슬릿에 있다. 이것은 단일한 매스가 아니라 가늘고 긴 매스들이 적재된 형태를 더욱 강조한다. 그 밖에 녹색의 유리 패널과 프레임만으로 이루어진 외피시스템에 집중하여 Valerio Dewalt Traind의 위스콘신, 33 East Main Office Building을 소개하였다.

■ Power

힘, 권력은 다양한 장소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감지된다. 유명한 건축가의 주택 프로젝트에서, 웹사이트 상의 미술관 분관과 미술관으로 새 단장된 발전소 건물(말 그대로 힘의 근원지)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다양하게 인식된다. 힘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흐름이다. 어느 정도가 실제적인 것이며, 어느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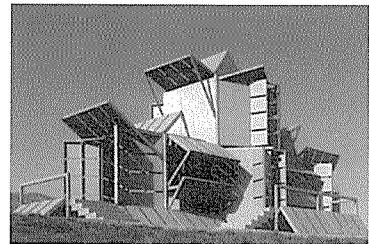
도가 무언극과 같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지를 다음의 건물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 Philip Johnson의 주택

지난 몇 해에 걸쳐 포토그래퍼 Michael Moran은 New Canaan과 Connecticut에 지어진 Philip Johnson의 주택을 찍어왔다. 그의 사진과 Hilary Lewis의 Philip Johnson에 대한 전기를 통해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랜드스케이프와 Philip Johnson 주택과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그 밖에 힘이라는 주제로 다음의 작품들 Catthay Lang Ho의 구겐하임 Virtual Library Santiago Calatrava의 스페인 발렌시아, IMAX 영화관 Robert Ventury & Denise Scott Brown의 프랑스 Toulouse 주청사 Herzog & de Meuron의 런던 Tate Gallery이 다양하게 다뤄졌다.

■ 미래주택의 제안



Mike Jantzen의 미래형 주택

가속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세계에 반해 주택산업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MIT의 미래주택을 연구하는 한 교수는 언급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혁신적 주택 디자이너(그는 건축교육을 받은 제품디자이너로 불린다)는 이제 건축 영역의 한계에 이르렀다. 그는 변형가능하며, 에너지 절약형에, 시공이 용이한 대량생산주택을 고안하였다. 네바다의 제조업체인 ASC는 유럽의 제품디자이너를 고용해 값싼 fibreglass로 만들어진 주택의 외피를 생산하고 있으며, Mike

Jantzen은 이동성과 모듈의 개념을 도입한 미래형 주택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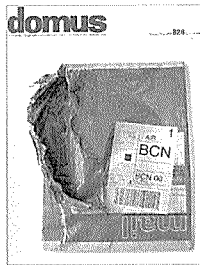
■ 기타

교토의 목조건물 보존 유명 건축가의 건축기행의 행로와 그들의 사고를 추적, 칠레의 Glass House에서의 한 여성의 생활을 훑쳐보는 퍼포먼스에 대한 리포트 The Triumph of Baroque : Architecture in Europe 1600-1750 이라는 주제의 전시회에 대한 소식 등이 자세히 다루졌다.

Domus

2000년 5월호

이번 호의 건축 분야에서는 Steven Holl, Hans Hollein 등 건축가의 신작들이 다루어져 있으며, 디자인 분야에서는 John Thackara와의 인터뷰, 접히는 사물들에 대한 재고 등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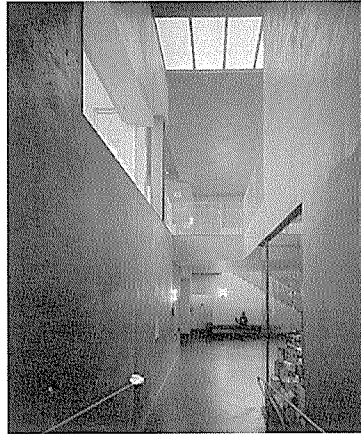
■ 건축

사회적, 정치적으로 특정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던 근대건축과 달리, 오늘날의 건축은 그 테마가 중심이 없이 제각각 흩어져있다. 사회적으로 그다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건축물들을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건축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고자 했던 열망을 갖고 있던 시대를 되돌아보는 Giancarlo De Carlo의 에세이가 실려있다. 이어서 다음의 최근작들이 소개되어 있다.

▶Giancarlo De Carlo의 Urbino 신 경제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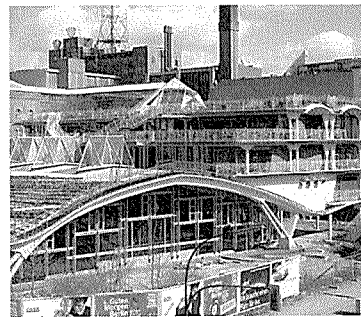
15세기에 지어진 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온 수도원 건물을 대학 시설로 개조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De Carlo는 외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내부에 새로운 시설들을 삽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Steven Holl의 미국 미시건 Bloomfields Hills Cranbrook 과학관



1924년 Eliel Saarinen에 의해 그 마스터플랜이 계획된 Cranbrook 대학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증개축이 이루어져 왔지만, Holl에 의해 설계된 과학관 증축만큼 기존 컨텍스트와 조화를 이룬 경우는 없었다. Saarinen의 타운 플래닝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Holl의 기존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적 실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Holl이 북유럽의 디자인 감수성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컨텍스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Hinrich Baller, Doris Piroth의 베를린 Winterfeldtplatz 스포츠센터 및 유아원



베를린의 경직된 건축물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건축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Baller의 근작으로, 그동안 미개발지로 남아있던 Winterfeldtplatz에 지어짐으로써 기존 도시 맥락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작품은 Baller의 스승이었던 Scharoun에서 유래된 또하나의 모더니즘 경향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외에 ▶Hans Hollein의 비엔나 뉴도나우 시 학교, ▶Eric Owen Moss의 캘리포니아 Culver City 두 개 프로젝트, 그리고 ▶인테리어 분야로 Fabio Novembre의 밀라노 SHU 레스토랑-바가 소개되어 있다.

■ 디자인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들이 급속도로 생활 양상을 바꿔가고 또한 우리의 미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대상에 대한 디자이너 John Thackara와의 인터뷰, ▶최근 아르헨티나의 디자인 경향, ▶접힘 의자, 자전거 등 공간적으로 접혀 부피가 축소되는 사물들에 대한 재고 등이 다루어져 있다.

■ 이벤트

헝가리의 사회, 건축 문제들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가고 있는 Karoly Kos 협회는 1989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 예술계

세계화와 국수주의, 유럽 나라들과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전략들과 멀티미디어 활용 등 다양한 토픽들이 혼재하고 있는 런던 예술계에 대한 Pierre Restany와의 인터뷰가 소개되어 있다.